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27일(토)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교회설립 105주년을 기념하는 공감음악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5월 12일에 초록장터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의류, 도서, 장난감, 육아용품, 가정용품 등을 기증 받습니다. 집에서 잘 사용하시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서 기증해주세요.

교회 잔반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사는 드실 수 있는 만큼만 받아 가시고 가져가신 것은 다 드시기 바랍니다.

행 9:36~43 / 시 23 계 7:9~17 / 요 10:22~30	고후 10:12-18

식 당 봉 사 : 안홍숙 임영선 이증자 이수정 박경선 박정숙 구성실 최재욱
다음 주 식당봉사 : 정영선 홍춘숙 김희우 김현주 김경혜 최종미 임창선 김대근
오늘설거지봉사 : 최미자 유상진 현우영 고정한 하진채
다음 주 설거지 : 이종배 고정림 김용훈 이원영 김재환 김진선 정현선
떡 대 접 : 허호범 박성실 (아들 결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5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85번지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경직되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믿음의 뿌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웃에 대한 마음은 한없이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한 해 한 해, 아래로는 뿌리를 강하게 키우고 위로는 가지를 부드럽게 키우며 자라가는 나무의 지혜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참혹한 일이 끝없이 벌어지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테러와 전쟁과 같은 참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런 소식을 접하며 가해자만을 욕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과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남종 오복선 김성한 조영순 김용진 박효선 김윤정 김정길 최숙화
김종철 고영애 김주영 김준호 곽혜자 김필순 김혜권 박재임 민병배
문현미 박석희 조항미 박창운 허정윤 성지현 송영철 양상철 박재란
윤수진 이국노 김민화 이나단 이윤석 박안수 이주영 오재영 임주빈
최현옥 정우선 정종삼 정한구 왕영순 주경진 이윤정 진은혜 허성호
차혜심 노미향 한규숙 허명선 허준호 홍순복 무명

감사헌금:
김 극 김재흥 최희영 박병구 방문성 이정자 장미란 정수복 조경숙
최윤선 최윤희 무명

생일감사헌금:
구성실 이애리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박호규 강영님 최미자 무명

	장 혜 숙	백 혜 숙	정 두 리	송 임 희
	노 순 옥	박 성 희	이 준 림	야 외
	김 재 흥	최 경 미	이 소 순	서 원 금
	장 영 숙	신 영 신	김 명 순	이 명 희
	정 경 례	진 정 숙	이 봉 배	정 경 례
	박 홍 재	곽 권 희	김 경 수	박 홍 재
	권 미 숙	박 미 영	박 미 영	권 미 숙
	이 순 정	김 금 순	오 복 순	김 금 순
	이 형 숙	윤 수 진	김 필 순	윤 미 경
	안 홍 숙	오 현 정	정 현 주	이 수 정
	정 영 선	서 정 순	김 희 우	송 양 진
	박 혜 경	조 항 미	박 혜 경	조 항 미
	김 재 흥	오 자 영		
	이 범 석	이 근 식		
	신 진 식	곽 상 준		
	장 영 숙	김 세 진		

마음으로 읽는 글

적막을 사온 저녁

선안영

날 비린내 달라붙는 남광주 재래시장
멱살잡이 싸움 판 한쪽에서 졸고 있던
벙어리 할머니가 파는
묵 한 모 사왔다

벗겨지고, 깨어지고, 팔팔 끓여져, 굳어진
정지된 시간 나란히 누운 침묵
그 침묵 완성되기까지
꽉 눌려 생략된 말…

모서리 날 선 각이 부드럽게 뭉개지고
이빨과 잇몸까지 받아들인 물렁함에
내 안의 사나운 아우성
묵 앞에서 침묵한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　　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사십시오. 유혹에 이끌려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며 말씀의 길을 정성스럽게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철을 따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단비를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다른 길을 기웃거리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간직하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신앙의 요체/ 김기석 목사 기도 : 신영신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재흥 목사	최문희 선생 권미숙 권사

4월	영접위원	윤석철 하현철 문홍일 안정숙 박홍재 박경원
	헌금위원	조병무 백혜숙

사람을 믿지 말고 말에 현혹되지 말라

오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신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곳에서 기만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신의를 발견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신뢰하는 일은 헛되지만, 의인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는 약하고 변덕스러우며, 쉽게 속기도 하고 빨리 변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자기를 잘 지키고, 어떤 속임수나 곤경에 빠지는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에 빠져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말려들더라도, 그는 신속히 주님의 손에 의해 구원받거나 주님께 위로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친구가 곤경에 빠졌을 때도 신의를 버리지 않는 친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 주님, 오직 당신만이 언제든지 신실하신 분이고, 주님과 같은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자리를 잡고 그분께 근거를 두고 있다." 아, 이렇게 말한 거룩한 영혼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나를 쉽게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내뱉는 말에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모든 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까? 장래에 당할 재난을 누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까? 미리 내다본 일마저도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스스로 잘 대비하지 못한 것을 보면, 참으로 가련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나는 다른 사람을 그토록 쉽게 신뢰하는지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며 천사라고 부른다 해도, 우리는 한갓 깨지기 쉬운 사람에 불과합니다. …

나는 손해를 통해 값비싼 교훈을 배웠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대만 알고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비밀인 줄을 알고 침묵을 지켰지만, 그는 지키기를 바랐던 그 비밀을 지키지 않고, 나와 자신을 모두 배반한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그런 경솔한 말과 부주의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수중에 빠지거나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진실하고 한결같은 말을 하도록 지켜주시고, 나에게서 교활한 혀를 잘라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고통을 나 자신도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아, 다른 사람들에 관해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모든 말을 무분별하게 믿지 않고, 들은 것을 쉽게 떠들지 않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울러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우리 자신을 열어 보이고, 마음을 관찰하시는 주님을 항상 구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바람과 같은 말에 이리저리 휩쓸려서는 안 되고,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기쁜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간직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을 피하고, 대중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추구하지 않고, 삶의 변화와 뜨거운 믿음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

– 토마스 아 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에서